

## 單発音読クリニック 上トレ10 ワシントンの徐在弼銅像

그제 워싱턴 한국인 동상 1 호로 서재필 동상이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 
제막됐다. 양복 차림에 왼손에 재킷을 든 모습이 고향 전남 보성에 있는  
동상과 같다. 미국 한인사회는 '재미한인의 아버지'라 할 서재필 동상이  
한인 젊은이들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. 워싱턴시도  
6 일을 '서재필의 날'로 선포했다. 1885 년 6 월 스물한 살 조선 청년  
서재필이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내린 지 120 여년 만이다.